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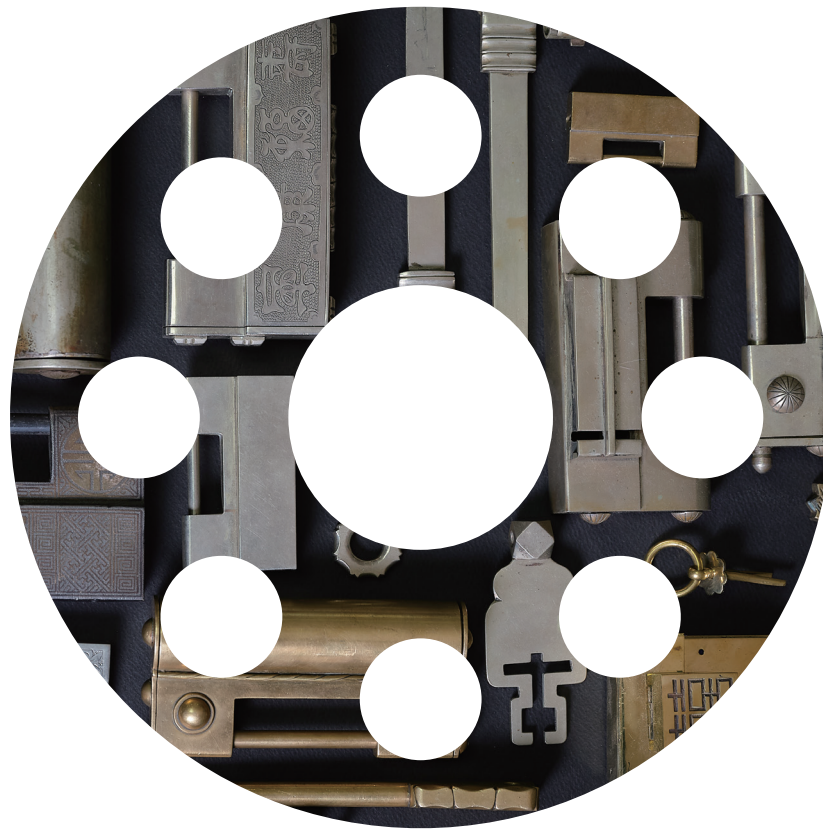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날카롭고 차가워 보이는 철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은빛의 메탈 자체로 멋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기와 건축물, 장식품으로 탈바꿈하여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2019년 <세아가족>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철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세 아 가 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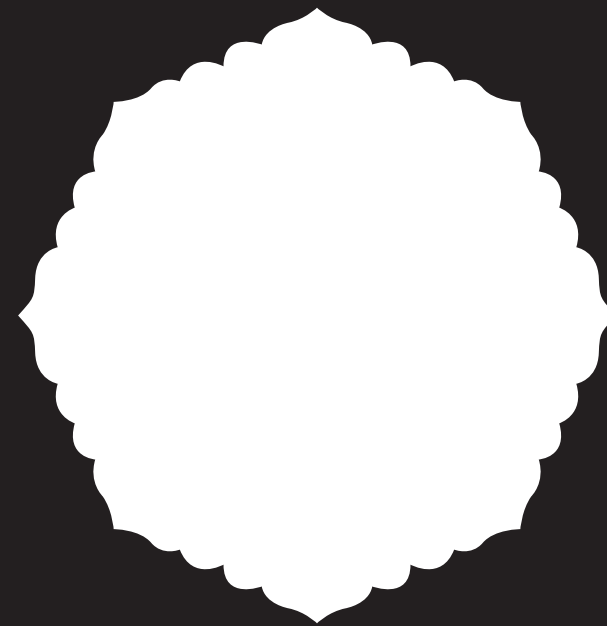
세 상 을 아 름답 게 하 는 사 람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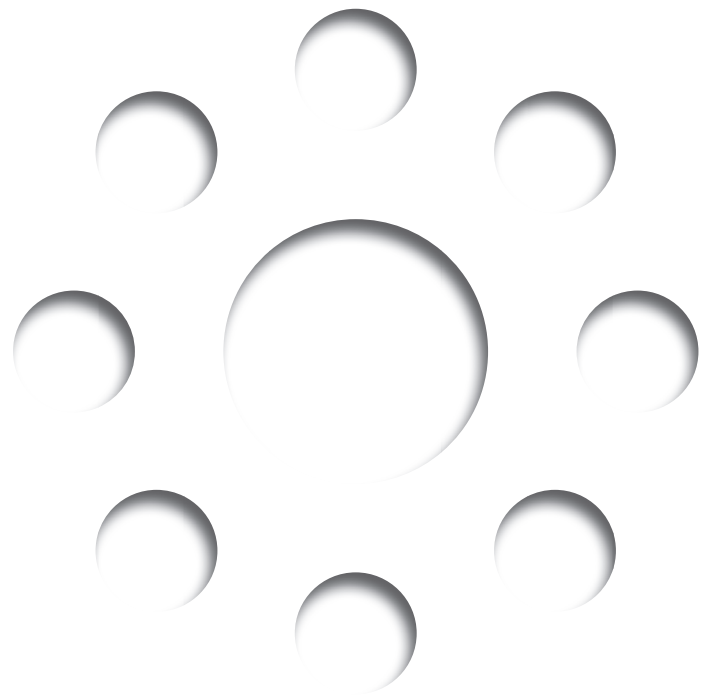
2019 03 + 04



세상에 이로움을 전달하는 예술과 기술



우리는 특별함을 만든다



장인은 집념으로 특별한 자물쇠를 만들고,
 세아베스틸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특수강을 만듭니다.
 예술과 기술, 각자의 분야는 다르지만 세상에 이로움을 전달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이번 호 <세아가족>은 특별함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 리 는 특 별 함 을 만 든 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yujin.lee@seah.co.kr
02 6970 0093

〈세아가족〉사보 기자

노승미 세아제강 인사팀 (서울)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포항)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군산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순천)
정민수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창원)
황미라 세아제강 영남영업파트 (부산)
이정준 세아베스틸 기획팀 (서울)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 (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 (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 (창원)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군산)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서울)
여환진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포항)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충주)
고소영 세아 FS 인사기획팀 (서울)
안광수 세아 FS 업무지원팀 (평택)
정재원 세아 ESAB 재경팀 (창원)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부산)
김다현 세아 M&S 경영지원팀 (서울)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 (서울)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대전)
김동현 세아네트웍스 인재개발팀 (서울)

CONTENTS



- 04.** **프롤로그**
장인 정신이 깃든 금속 공예,
장식
- 06.** **세상과 함께**
이음으로 여는 예술, 장식
—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박문열 두석장
- 14.** **세아와 함께**
고철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기술, 특수강
— 세아베스틸 고객기술지원센터
제품연구1그룹 최수조 그룹장
- 20.** **세아 포커스 I**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 2019 세아이윤형문화재단 음악회
- 24.** **세아 포커스 II**
그룹 내 태양광 발전소 구축 · 운용부터 외부 EPC
사업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다



- 26.** **철의 장인**
전기 정비, 안전을 최우선으로
— 세아씨엠 설비팀 전기장비반
김보건 계장
- 32.** **글로벌 리포트**
아랍에미리트의 최고 강관 회사로 우뚝 서다
— SeAH Steel UAE, LLC.(SSUAE)
- 36.** **팀플레이**
발상의 전환으로 무역 장벽을 넘다
—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 수상팀
- 42.** **최과장의 심리상담**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 46.** **세아 패밀리**
'가족', 미완성이 완성으로 되어 가는 과정
— 세아특수강 경영지원팀 재경파트
김경우 대리 가족
- 50.** **도구 열전**
작지만 대단한 도구
— 손톱깎이
- 52.** **세아 뉴스**
- 54.** **사우 동정**
- 55.**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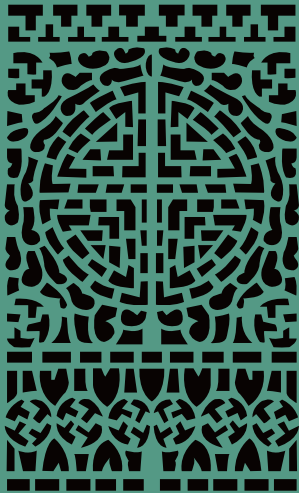
발행일 2019년 4월 20일(통권 380호) ISSN 2636-1787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Studio KENIN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인 정신이 깃든
금속 공예,
장식

—

裝錫



우리들 옛 마음씨가 이러하리라 / 엄정하고 다정한 췌대들처럼

마음에 따라 차갑고도 따뜻한 것 / 아무렴 그 안에 든 것들

욕심이라면 차갑지만 나누면 따뜻한 것 / 소중히 살려쓰라 췌대로 잠그는 것

잊혀져 가는 우리들 옛 마음씨처럼 / 도란도란 속삭이는 췌대들의 이야기

시인 박노해가 쓴 '췌대들의 이야기' 중 일부 내용이다. 시에 나오는 췌대는 '열쇠'를 뜻하는 방언으로, 옛 자물쇠를 의미한다. 우리 선조들은 자물쇠를 포함해 경첩, 고리, 들쇠, 감잡이 등을 통틀어 장식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장식은 목가구나 목공예품, 건축물을 닳지 않게 보호하고, 이음새 역할로 여닫는 기능을 했다. 동시에 나비, 박쥐, 물고기 등 다양한 문양으로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러한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두석장이라 하며, 두석장의 솜씨에 따라 장식의 가치가 달라진다. 조선시대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두석장은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에 각각 4명씩 배속되어 국가적인 행사나 왕실에서 사용하는 기물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 공조는 조선시대 중앙행정기구인 6조 중 하나로, 국가의 토목공사, 공예품 제작, 산림관리 등을 맡았던 곳이다. 오늘날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과 비슷한 역할을 한 셈. 상의원은 조선시대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재화·금·보화 등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을 말한다. 이처럼 두석장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금속 장식의 스페셜리스트였다.

장식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전통을 이어 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장인 정신까지도 담겨있어 더욱 특별하다.

이음으로 여는 예술, 장석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박문열 두석장

박문열 두석장에게 '전통'이란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다. 전통공예라고 해서 옛것을 답습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 그리고 열정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져 우리의 전통은 세상에 또 다른 특별함으로 소개된다고 말한다. 박문열 두석장을 만나 그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삶의 경험이 장식 제작의 초석이 되다

장식(裝飾)은 목가구나 목공예품, 건축물을 제작할 때 붙이는 금속 장식으로, 장식적 효과는 물론 실리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쉽게 말하면 손잡이와 자물쇠, 경첩 등이 장식에 해당하며, 결합 부분을 보강하는 기능, 문을 여닫는 기능, 내용물을 보호하는 잠금장치 기능, 이동을 위한 손잡이 기능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두석장(豆錫匠)이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스승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다. 이에 반해 박문열 두석장은 스승 없이 거의 독학으로 기술을 갖고 닦았다.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주물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쇳물을 녹이고 백동과 황금, 아연, 니켈 등을 얼마나 넣고 하는 합금 기술을 그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후 장식 공방과 가구 공장에 다니며 기술을 익혔고, 제 공방을 차려 장식을 만들고 현 가구를 수리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쇳붙이와 가구를 만지는 시간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기술을 알려주는 스승은 없지만, 오히려 제 인생 순간순간이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박문열 두석장은 전국으로 희귀한 유물을 직접 보러 찾아다녔고, 전통 장식을 재현하며 독학으로 기술을 익혔다. 여러 가지를 보고 익힌 덕에 그의 작업물은 종류나 범위에서도 광대하다. 걸쇠, 손잡이, 경첩 등 건축물 장식과 비밀 자물쇠를 재현한 것은 물론 전통 목가구에 백동판을 씌우고 무늬를 넣어 만든 백동가재반단아와 백동경대, 유기 촛대에 조명을 달아 만든 스탠드 등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까지 다양하다.

자유로운 정신으로 전통을 되살리다

박문열 두석장의 호는 '심경(心耕)'으로, 마음의 밭을 갈고 닦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뜻은 그의 일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그의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밭을 가는 일처럼 부지런해야 한다. 하루 종일 앉아 무쇠 조각을 두드리고, 새기고, 파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장식의 아름다운 모양은 바로 두석장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 박문열 두석장은 작업하는 데 기술이 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한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정 몇 개, 망치 몇 자루로 작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빈약한 공구로 어떻게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을까 싶어요.

- 1 - 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낸다.
- 2 - 문화재 복원을 위해 만든 경첩들
- 3 - 박문열 두석장이 손수 만든 송송이 장식



“장인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자유로운 정신으로 조상들의 전통을 되살리고, 한발 앞선 작품을 만드는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공구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기에 과거보다 못한 작품을 만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장인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집입니다. 자유로운 정신으로 조상들의 전통을 되살리고, 한발 앞선 작품을 만드는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박문열 두석장은 개인 작품 활동 외에도 주요 문화재 복원 작업에 다수 참여한 바 있다. 광화문과 경복궁 복원과 유지·보수에 참여했고, 지난해 101년 만에 복원된 흥복전(興福殿)도 박문열 두석장의 손을 거쳐 갔다. 부여 정림사지의

4 - 줄로 장식의 가장자리를 다듬는 박문열 두석장의 모습

5 - 박문열 두석장이 비밀 자물쇠 여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6 - 수백번을 두드리 완성한 장식

황동철물장식,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의 시우쇠 장식물, 단양 구인사 조사전의 철물 등 유명 사찰 곳곳에 박문열 두석장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집념으로 완성한 비밀 자물쇠

박문열 두석장은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무명시절을 보냈다. 장인의 등용문인 전승공예대전에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참가해 장식을 출품했다. 그 결과, 장려상 또는 입선을 꾸준히 수상했지만 큰 상을 받기에는 어려웠다. 장식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공예대전에서는 하나의 목가구에 박는 장식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깨달은 박문열 두석장은 자물쇠를 제작해 출품하기로 마음먹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특별한 자물쇠를 찾기 위해 자물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만, 생각만큼 좋은 자물쇠를 찾기란 어려웠죠. 그러던 중 경남 진주의 태정민속박물관에 좋은 자물쇠가 많다는 정보를 얻고 찾아갔고, 그곳에서 19세기 초 단조 기법으로 만든 7단짜리 비밀 자물쇠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사진도 찍고 도면도 자세히 그려오고 싶었지만, 개인 소장품이라 쉽게 허락받기 어려웠습니다. 박물관 관장에게 간곡히 부탁해 10분 동안 자물쇠를 직접 만져보고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고, 머릿속으로 그 형태를 기억해 나오자마자 스케치한 기억이 납니다.”

박문열 두석장은 집으로 돌아와 10일 동안 연구한 끝에 비밀 자물쇠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냈고 이를 완성한다. 1993년 전승공예대전에는 다양하게 제작한 비밀 자물쇠를 종류별로 한 벌씩 출품했고, 그 결과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200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보유자로 인정받는다.

인간문화재엔 특별함이 있다

마지막으로 박문열 두석장에게 특별함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남들과 다른 것이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특별한 사람으로 남고,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인간문화재이지만, 옛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문양과 디자인, 형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제 나이가 올해 일흔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여생을 지금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



장인은 집념으로 특별한 자물쇠를 만들고,



세아베스틸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특수강을 만듭니다.

고철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기술, 특수강

세아베스틸 고객기술지원센터
제품연구1그룹 최수조 그룹장

세아베스틸은 국내 특수강 시장점유율 1위의 특수강 전문 기업이다. 특수강 리딩기업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60년 넘게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수강 제품을 개발해 세상에 이로움과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제품 개발에 힘쓰는 세아베스틸 기술연구소 고객기술지원센터 제품연구1그룹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60년 노하우, 고품질 특수강 제품 생산의 바탕이 되다

특수강은 쓸모를 다한 고철에 기술을 더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재탄생된다. 특수강으로 만든 제품은 대부분 엔진이나 기계 주요 부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자동차, 선박 등 운송수단부터 석유 시추, 해상풍력, 해양플랜트 등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구조물과 건설 중장비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자동차 엔진이나 미션부품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엄격한 품질 조건이 요구된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특수강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최수조 그룹장은 특수강을 ‘철강 분야의 꽃’에 비유하며, 특수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특수강의 생명력은 합금 기술과 정련 기술에서 나옵니다. 특수강은 강한 내구성과 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강보다 생산 공정도 훨씬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전 세계 많은 제강공장에서 동일한 설비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품질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각 공정의 기술적 노하우의 차이죠. 세아베스틸 역시 현재 품질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제품에 녹여내다

특수강은 소재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에 세아베스틸은 기술연구소 내 고객기술지원센터를 배치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가 속한 고객기술지원센터는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그룹과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CS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개발그룹과 CS팀이 유기적으로 화합을 이뤄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특성 및 사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기술교류회를 시행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전기차, 해상 풍력 등 신사업에 적용되는 제품의 사양을 고객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객기술지원센터에서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용도 특성을 파악해 자체적인 검사기준을 설정하고 제품 생산에 반영하는 등 고객에게 편의성과 기술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최수조 그룹장은 고객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제품에 녹여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Made in SeAH’가 아니라 ‘Made in Together’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1 - 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100톤 전기로
- 2 - 쇳물을 몰드에 주입해 가늘고 긴 강재를 만드는 블룸 연주기
- 3 - 납품 전 제품의 수명을 파악하는 것은 제품연구1그룹의 중요한 업무다.



“특수강은 쓸모를 다한 고철에 기술을 더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재탄생된다. 자동차, 선박, 석유 시추, 해상풍력, 해양플랜트 등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다

국내 1위 특수강 업체인 세아베스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의 발주가 들어오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기존 틀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특화제품을 선보여 고객이 찾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보인 것이 6대 특화강종이다.

“6대 특화강종은 특수강 리딩기업인 세아베스틸의 오랜 노하우와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난해 말 6대 특화강종 개발을 완료했고, 초고청정강, 저변형강, 내마모강, 고충격인성강, 저이방성강, 무결함 봉강 제조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강 제품을 용도에 맞게 세분화해 고객에게 제안함으로써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과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제품연구그룹은 6대 특화강종을 시작으로 세아베스틸의 특화된 기술력을 선보이고,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매율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아베스틸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샘플 공급 및 양산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리플렛을 배포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또한 자사만의 특별한 제품, 6대 특화강종을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자 한다.

세아베스틸엔 특별함이 있다

세아베스틸이 가진 기술과 제품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최수조 그룹장은 ‘협동심’에 있다고 말한다.

“세아베스틸의 특별함은 우리는 하나라는 ‘협동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문제나 제품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각자의 이익이 아닌 전체를 위해 양보와 희생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예전에 비해 품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OPERA BUCKET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다

국내 1위 특수강 업체인 세아베스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의 발주가 들어오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기존 틀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특화제품을 선보여 고객이 찾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보인 것이 6대 특화강종이다.

“6대 특화강종은 특수강 리딩기업인 세아베스틸의 오랜 노하우와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난해 말 6대 특화강종 개발을 완료했고, 초고청정강, 저변형강, 내마모강, 고충격인성강, 저이방성강, 무결함 봉강 제조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강 제품을 용도에 맞게 세분화해 고객에게 제안함으로써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과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제품연구그룹은 6대 특화강종을 시작으로 세아베스틸의 특화된 기술력을 선보이고,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매율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아베스틸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샘플 공급 및 양산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리플렛을 배포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또한 자사만의 특별한 제품, 6대 특화강종을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자 한다.

세아베스틸엔 특별함이 있다

세아베스틸이 가진 기술과 제품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최수조 그룹장은 ‘협동심’에 있다고 말한다.

“세아베스틸의 특별함은 우리는 하나라는 ‘협동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문제나 제품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각자의 이익이 아닌 전체를 위해 양보와 희생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예전에 비해 품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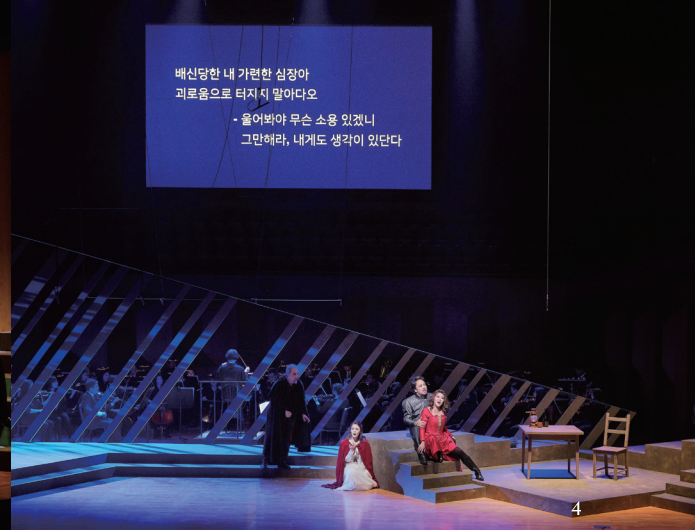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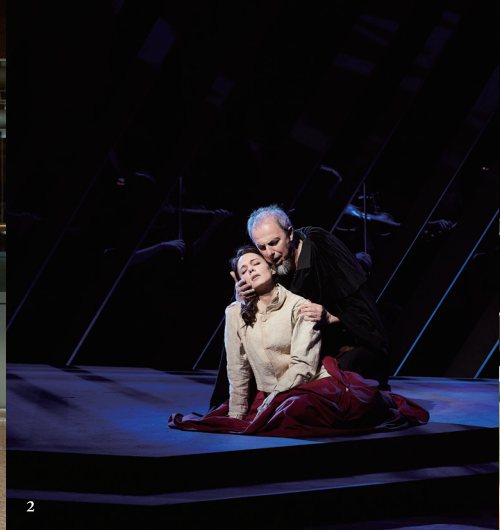
OPERA BUCKET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2019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지난 3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19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다섯 번째 정기음악회로, 베르디의 3대 걸작 '리골레토'를 공연했다. 생생한 감동과 환상적 전율을 동시에 선사했던 음악회 현장을 전한다.





무대에 오른 베르디의 3대 걸작 '리골레토'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대중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오페라 작품과 곡을 엄선해 2015년부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이라는 타이틀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지난 무대와 달리 올해는 두 시간짜리 전막 오페라를 선보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페라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의 3대 걸작 중 하나인 '리골레토'가 무대에 올랐다. 이 작품은 아리아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오페라의 줄거리는 광대 리골레토가 부도덕하고 방탕한 귀족사회를 벌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딸 질다를 죽이게 되고, 절망적인 운명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막이 올랐다. 오페라의 모든 장면이 극적이었지만, 그중에서도 3막에서 리골레토, 질다, 만토바 공작, 막달레나가 선보인 4중창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막달레나를 유혹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은 만토바 공작, 이를 집 밖에서 지켜보며 공작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질다와 그녀를 다그치는 아버지 리골레토의 모습이 대비된다. 질다와 리골레토의 2중창이 먼저 시작되고, 만토바 공작과 막달레나의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2중창이 더해져, 4중창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무대 조명 역시 명암을 주어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했다.

세련된 연출과 장정한 출연진으로 채운 무대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The Met)의 사라 마이어스가 연출을 맡았다. 오페라 버킷에서 해외 연출가가 연출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라 마이어스는 30년 뒤에 봐도 촌스럽지 않을 세련된 연출과

- 1 - 공연 후 주요 출연진들과 기념 사진
- 2 - 딸을 잃고 슬퍼하는 리골레토
- 3 - '보르자'역으로 무대에 오른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인재 테너 신현식
- 4 -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리골레토 · 질다 · 만토바 공작 · 막달레나의 4중창 장면

다시 봐도 재미있는 스토리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또한 이번 무대에서는 웃는 가면과 우는 가면을 양쪽에 붙인 봉을 주요 소품으로 썼다. 그녀는 슬퍼도, 딸이 납치되도 광대라 웃어야 하는 운명인 리골레토가 죽은 딸의 얼굴을 보고 절규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이번 오페라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레이첼 길모어와 바리톤 블라디미르 스토야노프가 각각 질다와 리골레토 역을 맡았다. 아울러 세계 유수 극장에서 활동 중인 테너 정호운(만토바 공작 역), 베이스 김대영(스파라푸첼레 역),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막달레나 역),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인재 테너 신현식(보르자 역) 등이 출연했다. 출연진들의 입체적인 연기와 아름다운 음악 덕에 공연의 몰입도는 높아져 갔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

“이제 당신만 오페라를 알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오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페라 전도사였던故 이운형 회장이 남긴 말이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오페라를 사랑하고 후원했던 그의 뜻을 기려 만들었다. 이에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여 더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예술의 감동을 선사하고,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보르자 역을 맡은 테너 신현식 역시 재단이 후원하는 인재 중 하나다.

故 이운형 회장의 생전 바람대로 대중이 오페라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오페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교류의 장을 마련해 문화예술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

그룹 내 태양광 발전소 구축 · 운용부터 외부 EPC 사업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다

태양광 발전사업 확장하는 세아네트웍스

지난 2012년 이후, 세아네트웍스는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 · 운용해오고 있다. 그룹 내 ‘유휴 공간’인 공장 지붕에 설치해 부지활용도를 높인 것은 물론 연간 33,00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연간 14,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세아네트웍스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부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외부 EPC 사업 진행을 통해 전문화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룹 내 역량 활용을 통한 신(新)성장 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18년 4분기 태양광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108GW로 사상 처음 100GW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도 2018년 한 해 동안 2.03GW 설치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인도, 미국에 뒤이은 전 세계 신규 설치 규모 7위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시행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세아네트웍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2012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휴 공간인 계열사 공장 지붕에 대용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룹 내 역량을 활용해 신성장 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자발적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청정에너지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다. 세아네트웍스는 지난 2012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시작으로, 세아그룹 계열사 공장 건물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 · 가동하고 있다. 현재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세아씨엠 · 세아창원특수강 · 세아특수강 · 세아메탈 · 세아 L&S · 세아 FS 등 주요 계열사 8곳의 공장에 28MW(발전소 28개소) 용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33,000MW의 전력을 생산한다. 일반 가정(월평균 350kWh 사용 기준) 9,000가구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임을 자랑한다.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KPX)를 통해 정산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고, 한국전력 발전 회사 및 민간 발전회사에 장기 고정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80억 원의 전력판매수익은 물론 14,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의 기반을 확보하였다.

건설부터 시공 ·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EPC 사업

세아네트웍스 신재생에너지 사업팀은 그룹 내 발전소 뿐만 아니라 외부 EPC 사업까지 확대해나가고 있다. EPC는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약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 계약을 수주한 사업자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16년부터 EPC를 진행한 세아네트웍스는 2018년까지 고려일호, 보은2호, 일산물류센터, 제주일광솔라 태양광발전소 등 4개소 준공을 완료했으며, 현재 충주 수안보면 태양광 발전소 1기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충주 수안보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는 세아네트웍스에서 진행한 EPC 중 최대 규모로, 설비용량은 2.7MW이며 연간 3,3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세아네트웍스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물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나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SeAH Networks

- 1 - 세아베스틸 창녕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모습
- 2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철의 장인

전기 정비,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아씨엠 설비팀 전기정비반
김보건 계장

김보건 계장은 1997년 당시 세아엔지니어링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22년 동안 전기 정비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모르면 물어보고, 기본적인 것까지 반드시 점검하고, 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전기 정비 분야 베테랑으로 손꼽히는 그의 올곧은 열정을 엿본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용기

김보건 계장이 취직 시험을 치렀던 1997년은 외환 위기 직전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다행히 회사 몇 군데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다른 곳보다 세아그룹이 더 끌렸다. ‘세아’라는 이름이 친근하게 다가왔고 비전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해 8월 1일 김 계장은 당시 세아 E&G(현, 세아엔지니어링)에 입사했다.

“입사 당시 군산 판매사업부 설비팀의 전기정비반이었습니다. 공장동 전등 교체부터 각종 전기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했죠. 그 후 설비에 사용하는 모터, 전기 계장, 전력선 통신(PLC) 등 전기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에 걸친 업무를 두루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세아씨엠 설비팀 전기정비반에서 전기 정비에 관한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 계장은 예나 지금이나 오로지 전기 정비 생각뿐이다. 20년 넘게 한 길을 걷고 있는 전기 정비 분야 전문가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은 물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

“전기를 전공했지만 입사 전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몇 번 한 것이 전부였죠. 입사 초기 설비팀 팀장님에게 전기 정비에 관한 기술과 기능적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후에도 전기공사 전문업체, 설비 공급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사람은 누구나 오랜 기간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기 마련이다. 김 계장 역시 세아씨엠에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 가장 기뻐했다고 했다. 일하면서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간 것도 바로 그때였다고 회상했다.

“전기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저희가 유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느 곳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보통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터나 기계를 돌릴 때 메인 차단기가 작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전등을 켤 때 스위치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당시 전등의 스위치 같은 부분이 문제였는데, 저희는 그것을 간과함으로써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제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스위치 같은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1 - 라인 패트를, 즉 현장 설비를 순회 점검하는 모습
- 2 - 전기장비의 과열점을 파악하는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 3 - 전기가 감지되면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이 들어오는 팬형 전압 테스트기



이 일을 겪으면서 김 계장은 IT와 전기, 전자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기본 바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1980년대 학교에서 배운 전공 내용을 지금까지 기본 지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김 계장은 요즘에도 현장을 돌며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점검해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고 있다.

전기 정비 업무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 역시 기본 중에 하나다. 김 계장은 항상 계측기와 전압 테스터 등 올바른 정비 도구를 사용한다.

“회사에서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안전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감지에 참을 문혀서 확인하는 등 무식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안전한 장비를 사용해 정비하죠. 또 팀원들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사항이 많으면 헛갈리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 올바른 안전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합니다.”

4 -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실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김보건 계장



4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협업

김 계장의 하루는 오전 6시 30분 아침 조회로 시작한다. 저녁 조원, 아침 조원과 함께 전기 정비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점검할지 살핀 후 점검 결과를 이야기 나눈다. 때에 따라 자재가 필요하면 구매한다.

“정비 업무는 대개 바로 할 수 있지만, 설비 관련 업무는 생산 부서 등 타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유관 부서와 일정을 맞춰야 하므로 부서 간 협업이 무척 중요하죠. 예전에는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조율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계장은 항상 협업을 강조하는 공장장님의 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지만, 그전까지는 협업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의 공장장님이 부임 초부터 협업을 강조하셨고, 해를 거듭할수록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 부서와의 업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김 계장이 20년 넘게 장기 근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동료의 힘이 컸다. 같이 일하는 설비팀 전기정비반 직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저를 포함한 전기정비반 직원 5명은 가족 같이 서로 밀고 당기며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끔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데 그럴 때면 바로 풀려고 노력합니다. 동료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푸는 식이죠.”

이뿐만이 아니다. 김 계장은 전기 정비 분야의 베테랑으로 인정받는 지금도 여전히 ‘지피지기(知彼知己)’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마음에 새긴다. 설비 유지 관리를 위해 설비 박사가 돼야 하므로 지피지기가 중요하고, 관리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역지사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우리 회사는 철강 회사라는 특성상 사업장 안에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후배들이 ‘내가 안전하면 설비도 안전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정년 전에 후배들에게 수십 년 동안의 직장 생활 및 업무 노하우를 모두 전수하고 싶습니다. 간혹 힘들 때도 있겠지만 세아 가족과 함께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즐겁게 일할 것입니다.”

내로라하는 전기 정비 분야 베테랑이지만 더없이 겸손한 김보건 계장.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인터뷰 말미를 장식한 그의 진심이 〈세아가족〉을 통해 세아씨엠편 설비팀 후배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본다. ☺

2010년 2월 문을 연 SeAH Steel UAE, LLC.(이하 SSUAE)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강관 회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한동안 경기 침체에 빠졌던 중동 지역은 2년 전부터 오일 가격이 회복되면서 경기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중요한 변화의 시기, 세심하고 유연한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매진하는 SSUAE 문정훈 법인장을 비롯한 주재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랍에미리트의 최고 강관 회사로 우뚝 서다

SeAH Steel UAE, LLC.(SSUAE)

글. SSUAE 문정훈 법인장, 장원호 차장

불가능을 가능으로! 아랍에미리트 최고의 강관 회사

SSUAE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MENA)을 중심으로 플랜트용 강관과 오일가스용 송유관, 구조용 강관 등을 생산·판매하는 대규모 강관 전문 회사입니다. 2010년 2월 MENA 지역의 국내 건설업체 수주에 대응해 현지 강관 공급과 API 송유용 강관(Line pipe)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 전 세계 석유 자원의 최대 공급처인 중동 시장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이듬해인 2011년 3월부터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 지역의 알가일(Al Ghail) 산업 공단에 위치한 공장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Press Bending 방식의 JCOE와 Roll Bending 방식의 Roll Bender 설비 1기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통해 외경 18"~120", 두께 최대 60mm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15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법인 설립 초창기에는 납품 일정이 촉박해 단기 수주분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구색을 갖추고 강관 생산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부다비의 타크리어(TAKREER)사의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 성공적으로 강관을 납품할 수 있었죠. 당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성공적으로 해냈고, 이는 SSUAE의 역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국내외 프로젝트에 고품질 강관을 공급했고, 2017년과 올해는 영국의 풍력 발전 단지(Wind Farm) 건설을 위한 해양 구조용 강관을 수주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강관 회사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5만톤 판매와 영업 이익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UAE 국영 석유회사인



1 - 6,500톤의 프레스를 이용하여
성형한 다음 내외면을 용접하는
JCOE 설비
2 - SSUAH에서 함께 근무 중인
문정훈 법인장, 장원호 공장장,
류현철 부공장장

ADNOC의 CFP 프로젝트와 M 프로젝트 그리고 현재 북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Wind Farm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그 외에 여러 프로젝트 수주가 진행되고 있어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직원이 합심해 수주 물량의 생산과 납품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최대 생산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원가를 실현해 영업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 세심하고 유연한 대응이 경쟁력

중동 지역은 최근 4~5년 동안 경기 침체가 지속돼 왔습니다. 오일과 가스 관련 산업이 경기의 중심을 이루는데, 2015년부터 오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예정됐던 많은 프로젝트가 축소·중단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 2017년부터 오일 가격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경기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오일과 가스 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로 인해 오일과 가스 가격에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Non Oil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도심을 개발하는 등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KSA)과 아랍에미리트(UAE)를 필두로 여러 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받아 들어 산업 대부분에 부가가치세 5%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는 실정입니다.

SSUAH는 중동 지역의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세심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산 안정화와 더불어 끊임없는 기술 개발, 전문 생산 인력 양성으로 고품질 강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추가 설비 투자와 확장을 통해 다양한 규격의 강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올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의 오일 & 가스 관련 산업 전시회 'ADIPEC' 준비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아홀딩스가 주관해 관련 계열사 다수가 참여하는 만큼 개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SSUAH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내 고객사가 전시 부스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현지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아주 특별한 경험 라마단 음식 문화 이프타르



아랍에미리트 문화 중 라마단 음식 문화인 '이프타르(Iftar)'가 눈길을 끄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위한 라마단 기간 동안 새벽부터 일몰까지 금식과 자애를 실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몰 후 저녁 기도를 마치고 먹는 첫 식사가 바로 '이프타르'입니다. 이프타르는 '금식을 깬다(break fasting)'는 뜻으로, 하루 동안의 금식을 마무리하면서 먹는 호화로운 만찬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프타르를 통해 친구, 가족과 함께 여유를 되찾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호텔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이프타르 특별 뷔페를 선보입니다. 관공서나 회사는 호텔이나 큰 식당에서 이프타르 초대 행사를 엽니다. 우리 회사도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를 초대해 저녁을 대접하죠. 저희 역시 실제로 회사의 스폰서인 RAK 투자청(RAKIA)에서 주최하는 호텔 이프타르 초대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프타르는 하루 종일 굶었다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속을 가볍게 달랠 수 있는 대추야자, 요구르트, 과일주스 등을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메인 요리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밥과 함께 큰 접시에 올려놓은 'Lamb Ouzi'가 대표적입니다. 이 음식은 특별한 행사나 결혼식 등에서 손님 초대 음식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여느 뷔페 코너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마련하는 이프타르 특별 뷔페는 평소보다 더 아랍 음식 위주로 차려집니다. 이 때문에 아랍 특유의 향을 싫어하거나, 아랍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를 처음 방문해

아랍 음식을 한 가지쯤 맛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호텔 이프타르 뷔페가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프타르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 여행 팁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두바이 럭셔리 호텔에서 묵고 싶다면, 라마단 기간이나 6~9월 사이의 비수기를 이용해보세요. 이때는 다른 기간보다 30~50% 정도 할인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엄두 내지 못했던 럭셔리 호텔에서 묵으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 연례행사인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DSF)'을 기억하세요. DSF는 세계 최대의 쇼핑 축제로 두바이 도심 전역에서 12월 26일경부터 한 달 정도 열립니다. 이 기간에 두바이 쇼핑물을 찾으면 기본 30~50%, 때에 따라서는 9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무역 장벽을 넘다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 수상팀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 수상팀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세일가스 펌프용 Forged Block을 개발해 회사 내 스테인리스 제품 최초로 미국 오일&가스 시장에 진입한 것은 물론, 보호무역주의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자 생각의 전환을 통해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다.

Challenge

새로운 도전만이 살길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국내 최고 수준의 특수강 전문 제조 회사다. 세일가스 펌프용 Forged Block 개발로 세아업 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을 거머쥐면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2018년도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 수상팀(수 상 당시 소속 기준)은 제품연구1그룹 3명과 단조파트 2명, 글로벌마케팅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세 일가스 펌프용 Forged Block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품연구1그룹 이권영 선임이 개발하게 된 계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2017년 초만 미국에서 세일가스 채굴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Forged Block 소재를 합금 강에서 630계 STS 강종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소재를 공급받을 곳이 필요해졌습니다. 때마침 우리 회사는



1 - 이번 프로젝트의 바탕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라고 설명하는 글로벌마케팅팀 임상범 과장
2 - 공구강 단조 환봉을 생산하는 단조 공정

2단조의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대형 단조품 수주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630계 Forged Block은 그때까지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규모라 약간의 위험이 뒤따랐지만 ‘도전하자’는 생각으로 제품 개발에 임했습니다.”

세일가스 펌프용 Forged Block은 세일가스를 채굴할 때 사용한다. 수직 시추로 손쉽게 채굴하는 천연가스와 달리, 세일가스는 ‘L’ 자형 시추공을 만드는 수평정시추와 물·모래·화학약품이 섞인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수압파쇄법으로 채굴한다. 이때 고압을 만들기 위해 펌프 여러 대를 사용하는데 Forged Block이 이에 속한다. Forged Block은 물·모래·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펌프 내 마모성이 일반 펌프보다 훨씬 우수하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세일가스 펌프용 Forged Block 개발에 힘입어 회사 내 스테인리스 제품 최초로 미국 오일&가스 시장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마케팅팀 임상범 과장은 “모두 도전 정신으로 하나가 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각자 하는 역할과 부서는 달랐지만, ‘신규 제품을 개발해 오일&가스 시장을 개척하자’는 목표 아래 도전 정신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모르는 부분을 서로 배우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팀원들의 열정으로 푼심 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 개개인의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팀워크 향상은 물론이고 성과를 창출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ommunication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빛을 발하다

이번 세일가스 펌프용 Forged Block 개발에서 도전 정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연구2그룹 최상민 선임은 “각 공정 담당자끼리 카톡방을 개설해 진행 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이런 의사소통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상범 과장 역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Forged Block 개발 업무에 참여하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자신의 부서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의견 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팀원 각자가 능동적 자세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발 과정에서 힘든 일도 적잖았다. 단조파트 이문수 안전기술 주임은 특히 열처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세일가스 펌프용 Forged Block 생산에서 단조파트가 가장 고민한 부분은 열처리였습니다. 물성이 워낙 까다롭게 관리돼야 하다 보니 고용화열처리(SL), 시효경화(AG)의 최적 조건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품연구소는 문헌을 바탕으로 작업 지침을 바꿨고, 공장은 최적의 열처리로 상태를 만들어 포인트별 시물레이션 결과를 적용한 뒤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시험 결과값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어찌나 더디 흘렀는지 모릅니다. ‘협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해냈어!’라고 외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상민 선임 역시 열처리 부분이 어려웠음을 토로했다. 더불어 까다로운 작업이었던 만큼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이 상당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물성을 맞추기 위한 열처리 조건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두세 번 정도 열처리 조건을 변경했는데 그러다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반납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수행한 팀원들의 노력 덕분에 열처리 조건 수립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nnovation

아이디어와 기술로 혁신을 창조하다

이번 세일가스 펌프용 Forged Block 개발은 짧은 기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프로젝트로 팀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진행했다면 1년 넘게 걸렸을 작업을 6개월 만에 해낸 비결이 궁금했다. 제품연구그룹 오대희 주임은 신속성에서 답을 찾았다.

“오일&가스 시장은 규모가 클뿐더러 처음 접하는 고객사였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면 곤란한 상황이었습다.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빠르게 진행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상범 과장은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혁신을 창조한 것이 Forged Block 개발·수출의 밑바탕이 됐으며, 이는 회사의 미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Forged Block은 강도·경도·저온 충격 특성 등 고객사의 요구 특성을 만족하면서 사용 용도를 고려해 제반 특성을 개선한 결과, 기존 제품보다 수명이



3배나 증가해 수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외부 요인에 의한 어려움이 뒤따랐다.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로 인한 수출 중단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품질보증팀 이영생 팀장이 조심스레 당시 상황을 전해주었다.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로 인해 관세 부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Forged Block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팀원을 포함한 수많은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존에 공급하던 4각 블록 형태는 소재로 분류돼 관세 부과 대상이었지만, 고객사 도면에 따라 황삭 가공한 완제품은 기계 부품으로 분류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봄을 맞아 세아창원특수강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달리고 있다. 이문수 주임은 “단조공장 출입구 내부에 걸려 있는 ‘The Future Begins, Here!’ (미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문구를 되새기면서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오대희 주임은 “올 초 업무가 400계 STS 강종 담당으로 변경됐는데 하루 빨리 적응해 회사 수익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다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는 최상민 선임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접목시켜 단조 공정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글로벌마케팅팀 김동일 대리는 “회사의 미래 먹거리인 Forged Block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도울 것이며, 나중에 다른 팀처럼 Forged Block이 단일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이 바로 세아창원특수강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임이 분명해 보인다. ☺

3 - 인터뷰가 이뤄진 3월의 어느 날, 세아창원특수강에는 봄꽃이 만개했다. 이를 배경으로 수상팀 팀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고 있다.



‘어벤저스’

공정연구그룹 최상민 선임연구원



부서별 수퍼히어로로 구성된 우리 팀은 어벤저스 같습니다. 마케팅 담당자의 신수요 개발, 연구소 담당자의 체계적 설계, 생산 관리와 생산 담당자의 정확한 생산 진행과 납기 관리를 통해 세일가스 펌프용 Forged Block 개발 성공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찰’

품질보증팀 이영생 팀장



우리 팀은 경찰 같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기준, 표준을 법이라고 볼 때 이 법을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키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종갓집 장남’

글로벌마케팅팀 김동일 대리



내수 시장이 포화인 상황이므로 회사에서는 수출에 큰 기대를 겁니다. 때문에 우리 팀은 회사의 ‘종갓집 장남’ 같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 기대감을 자양분 삼아 한층 더 발전하면 글로벌 철강 기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설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뚜기’

대형압연팀 단조파트 이문수 주임



특수강은 말 그대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많이 개발하는데 그런 만큼 실패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죠. 이런 우리 팀의 모습은 오뚜기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에서
우리 팀은 000이다

* 2019년 기준의 소속팀 기준으로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팀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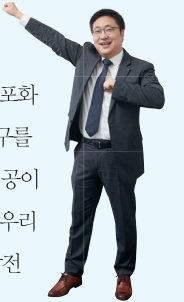
제품연구그룹 이권영 선임연구원



우리 팀은 회사 내 각기 다른 소속팀의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팀입니다. 각자 맡은 업무는 다르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져 유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기에 최고의 ‘팀플레이’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

글로벌마케팅팀 임상범 과장



우리 팀은 회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국내는 경기 침체 및 내수 시장 포화 상태입니다. 수출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글로벌 시장 또한 성공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은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일정상 오대희 주임연구원은 촬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조직 생활, 자기 개발, 인간관계, 처세술, 진로 고민, 외국 생활 등등 직장에서 겪는 세아인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세요. 13년 차 직장인이자 상담가인 최과장이 상담해드립니다. '최과장의 심리상담'에서 상담해줬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메일(seah_family@naver.com)로 보내주세요. 익명성이 보장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매달 3명의 고민이 실릴 예정입니다.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 드릴 예정이오니, 메일 하단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카운셀러 소개 | 최과장(필명)

13년 차 현직 직장인이자 심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업 후, 심리학과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현재 브런치에서 최과장의 직장인 심리상담(<https://brunch.co.kr/@sogangbest>)을 연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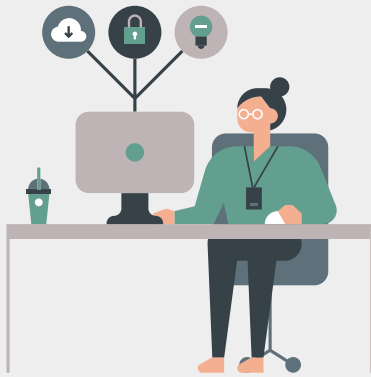


Q1. 이직 후 회사 적응이 힘듭니다

새로운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직장 내 인간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것도 힘들고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선배들의 업무 스타일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만 보게 됩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때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혼자 끙끙대며 문제들을 다 안고 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스트레스는 배가 되곤 합니다. 이직 후 적응은 어떻게 해야 빨리 할 수 있을까요?

A. 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보군요. 이직 직후 느끼는 낯선 경험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직을 세 번 해봤어요. 이직하고 나면 보통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 훨씬 많죠. 회사 분위기, 시스템, 사람들, 사무 공간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생소하기만 합니다. 신입이 아닌 경력으로 들어간 터라 부담도 더 많이 느끼죠. 빨리 자리를 잡고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적응을 바로 끝내고 바로 업무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처음에 오자마자 너무 잘 해버리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선배들로부터 경계심과 시기심을 살 수도 있구요. 결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형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시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배를 가리지 않고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모르는 것이 있을 땐 주저 말고 솔직하고 자신 있게 물어보기, 과제가 주어지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주변에 조언을 구하며 최선 다해보기 등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새로운 조직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신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노력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반드시 빠른 시간 내 회사 적응을 완벽히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봅시다. 시간은 결국 노력하는 당신의 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너무 조바심은 내지 않도록 해요.



Q2. 부서의 잡무는 모두 저에게 와서 고민입니다

입사 5년 차입니다. 후배들이 새로 입사를 하는데도 모든 잡무는 저에게 오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입사 이후 줄곧 당연하게 생각하며 해온 일들이지만, 후배 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만 업무 지시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들은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잡무는 저에게만 시키고 이런 잡무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도 저에게만 당연하게 물어보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Q3. 업무와 가사 스트레스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가사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성 불면증을 겪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새벽에 두세 번은 계속 깨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유 없이 직장동료들이나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화가 나면 뭐라도 먹어야 마음이 편해져 폭식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스트레스성 불면증 때문에 자주 화가 나고 폭식증이 생기니까 일상생활이 완전 엉망이 되고, 몸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A. 후배들이 뻔히 있는데 잡무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오는 것 같아 부담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괜한 피해 심리로 이어질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맡은 역할과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상사가 당신을 그만큼 신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후배 사원들은 아직 못 미더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당신이 후배 사원들의 업무 처리 역량을 직접 키워주셔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승자 효과(Winner's effect)가 있습니다. 영국 신경심리학자인 이안 로버트슨(Ian Robertson)이 '승자의 뇌'라는 책에서 소개한 개념인데요. 사람은 성공을 경험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지배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함으로써 성공을 열망하고 소유하려는 욕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은 성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더 잘 안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공도 해본 사람이 그 맛과 방법을 더 잘 알아 다음번에 좀 더 쉽게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초반의 작은 성공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 조금 실수해도 괜찮은 작은 일부 더 후배들에게 맡겨보세요. 작은 성공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작은 성공을 경험한 후배들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업무 능력을 키워 당신이 하는 일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후배들의 멋진 멘토라는 찬사를 듣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A.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동시에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 이죠. 슈퍼우먼이 따로 없는 거예요. 슈퍼우먼은 그래도 애는 키우지 않았잖아요? 워킹맘들은 하루에 두 번 출근 합니다. 회사로 한 번, 집으로 한 번 말이죠. 집으로 출근 한 후에는 아이들 저녁 식사부터 숙제 검사, 빨래, 청소, 설거지 등등 해야 할 일들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는 우선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그대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벽에 붙은 파리 효과(Fly-on-the wall effect)'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벽에 붙어 있는 파리처럼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나의 격한 그 순간의 감정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말과 행동을 자제할 수 있고요.

평소 스트레스를 꾸준히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 쓰레기를 꾸준히 내다 버리듯 평소 당신의 스트레스도 꾸준히 배출해야 합니다. 몇 주치 쓰레기를 한꺼번에 내다 버리려면 힘든 것처럼 불편한 마음의 찌꺼기들을 한꺼번에 배출하려 하면 자신도 주위 사람도 힘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좋은 책이나 영화를 봐도 좋고 따뜻한 오후의 산책 좋습니다. 평소 마음에 들어 했던 옷을 한 벌 사도 좋고요. 대신 폭식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평소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며, 스트레스를 꾸준히 배출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고민님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이곳 남양주 봉주르 카페를
다시 찾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는
연인에서 가족이 되었고,
둘에서 넷이 되었다.

세아 패밀리

‘가족’ 미완성이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

세아특수강 경영지원팀 재경파트
김경우 대리 가족

삶에서 가족을 이루는 일은 미완성을 완성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미완성에서 완성이로의 꿈을 차곡차곡 이뤄나가고 있는 김경우 대리가, 그의 가족과 함께 세아 패밀리의 주인공이 됐다. 몇십년간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가족이 되어 합작품으로 완성한 어여쁜 아이들은, 그들에게 또 다른 경이와 기쁨을 선사하고 있었다.

넷이 되어 다시 찾은 그곳

김정우 대리와 그의 아내 조윤미 씨가 데이트하러 남양주에 2011년 1월쯤 왔으니, 다시 이곳을 찾아오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일들이 많았다.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부부라는 결실을 보았고, 두 사람을 꼭 닮은 ‘범진’과 ‘나연’이라는 걸작도 얻었다.

“시간이 8년이 지났다는 게 놀라워요. 우리는 연인에서 가족이 되었고 둘에서 넷이 되었어요. 사진 속 아리따운 여인이 두 아이의 엄마로서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당시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주말이면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며 다녔다. 차도 없는 뚜벅이 신세였기에 멀리 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었다. 남양주 봉주르 카페는 뚜벅이 신세였던 그가, 아버지께 차를 빌려 갈 수 있었던 최상의 데이트 장소였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두 사람의 기분을 전환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그 시절 둘이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더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이 행복했다. 추위도 무색할 만큼.

“사진 속 아내가 입고 있는 옷은 제 옷이에요. 그날 날이 무척 추웠어요. 아내가 너무 추워하길래 제 옷을 벗어서 아내에게 걸쳐줬죠. 그런 제게 아내는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걸어주더라고요. 지금 다시 보더라도 얼마나 행복한 연인이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 1 - 봉주르 카페에서 머지않은 곳에 있는 능내역 이곳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폐간이역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두어 사진 찍기에 좋다.
- 2 - 연인 시절 철길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2011)
- 3 - 네 가족의 발이 담긴 사진(2019)



추억은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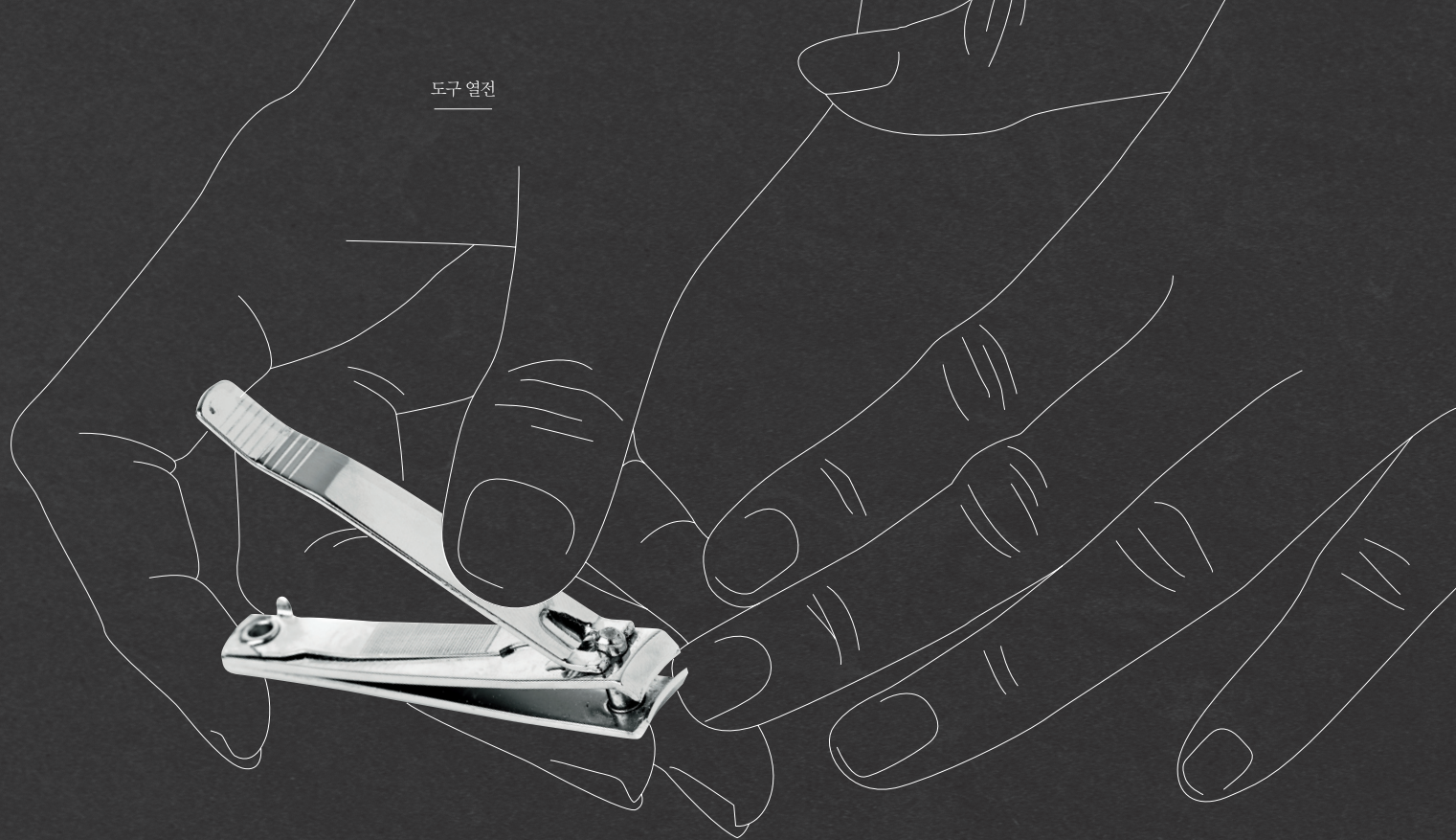
시간이 흐른 만큼 이곳 남양주 봉주르 카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던 철길이 사라진 것. 그때의 풍경이 사라져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추억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봉주르 카페에 가까이 다가가수록 어렵듯이 그때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그리고 또 그들의 추억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추억을 더했다.

“오랜만에 와본 곳이긴 하지만, 그때 마주했던 풍경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여전히 곳곳에 추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혼생활도 잠시, 아이가 생겨나면서 부부의 시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흘러갔다. 그렇게 부부는 부모가 되어 가면서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경이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 김정우 대리는 연신 핸드폰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아내와 아이의 미소를 사진 속에, 가슴 속에 깊이 새겼다.

“서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가족 모두 행복하게 성장하면 좋겠어요. 특히 아내가 그러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조윤미 한 사람으로서 발전하고 즐기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겠지만, 차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윤미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면 좋겠어요.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사보를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제 진심입니다!”

팔당호를 배경으로 나란히 선 네 명의 가족. 기분 좋은 웃음이 모두 똑 닮았다. 개구쟁이 범진이와 말팔랑이 나연이의 아빠, 엄마로서 오늘을 사는 그들. 부족한 부분이 전체를 이루어 완성되듯, 모처럼 가족이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촬영하는 동안 가족의 얼굴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



작지만 대단한 도구

손톱깎이

손톱깎이는 작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다. 이 작은 손톱깎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적게는 10여 가지, 많게는 40여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제작 공정에는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을 제작할 때 응용되는 정밀 금속가공 기술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크기까지 작아 '금속가공 기술의 결정판'이라 불린다. 손톱깎이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있는 동안은 손톱과 발톱이 계속 자란다. 둘의 차이라면 발톱을 깎는 쪽과 깎지 않는 쪽이 있다는 것. 사람은 언제부터 손톱과 발톱을 깎기 시작했을까?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문명의 발전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기다란 손톱을 물들여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반면, 중세 초상화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손톱이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손톱과 발톱이 길면 불편하다고 느꼈고, 주기적으로 깎기 시작했다. 손톱깎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가위나 칼을 이용해 잘랐을 것이라 추측한다.

손톱깎이는 1896년 미국인 채플 카터(Chapel Carter)에 의해 발명됐다. 1947년 미국의 트림(TRIM)사가 손톱깎이를 대량 생산했고, 이때부터 대중적으로 손톱깎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손톱깎이 원조 기업인 트림을 비롯해 미국의 레브론·베이트, 일본의 카이 등 손톱깎이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 직후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PX를 통해 소개되고 유통되었다.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도 손톱깎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자원이 부족했던 터라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품을 이용했다. 드럼통을 잘라 몸체를, 자동차 바퀴대로 지렛대를, 천막에 붙은 두꺼운 비닐창으로 손잡이 부분에 무늬를 넣어 완성했다. 첫 제품은 '손톱뜯기'라 할 정도로 품질이 엉망이었지만, 품질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제품을 만들었다. 1975년 쓰리세븐(777)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 해외로 동남아, 중남미 등 수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1위의 손톱깎이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손톱깎이는 두 가지 유형의 지레가 적용된 복합지레의 원리로 움직인다. 2종 지레라고도 하는데, 힘을 주는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것을 말한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손톱깎이의 손잡이에 힘을 가하면 손잡이의 돌기에 의해 윗날이 내려가고, 중앙의 봉에 의해 아랫날은 올라가는 방식이다. 또한 손톱깎이는 금형, 열처리, 도금 연마와 같은 여러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기본적으로 10여 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30~40여 가지 공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공정을 거쳐 완성된 손톱깎이는 몸통은 수만

번의 동작에도 탄성을 잃지 않고, 날이 잘 닳지 않으며 정확히 맞물린다. 이를 위해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을 제작할 때 응용되는 정밀 금속가공 기술이 사용된다고 하니, 새삼 손톱깎이가 대단한 물건임을 깨닫는다. 이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는 작지만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이 많다. 손톱깎이라는 사소한 물건에 이처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있을지 누가 알았으랴. ●





세아 뉴스

세아그룹과 주요 계열사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합니다.

| 세아그룹 |



나눔세아 캠페인 활동 성료

지난 연말, 세아그룹은 920g 미숙아로 태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현이(가명)'를 위한 나눔세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약 두 달에 걸친 모금 활동을 통해 1,070만 원의 성금이 모였으며, 세아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성현이에게 큰 힘을 선물해주었다. 2018 생산부문 업적상 수상팀인 세아제강 9명이 상금의 일부를 기부하며 수상의 기쁨을 홀트와 나눴다. 성금은 하루 20시간 이상 쓰고 있어야 하는 헬멧 교정치료와 또래보다 발달이 느려 일주일에 2번씩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 비용에 사용되었다.

| 세아제강 |



포항공장 대한적십자사 명예상 수상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대한적십자사 명예상으로 지난 2015년 은상, 2016년 금상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아제강은 매년 사랑의 무료급식 봉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도 60여 명의 임직원이 6월 한 달간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무료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역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세아베스틸 |



소형정정 '쾌적한 현장' 만들기

2019년을 맞이해 소형정정 공장이 새 단장을 마쳤다. 그동안 소형정정 공장은 '깨끗한 우리 현장 만들기'라는 목표 아래,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이동 통로와 부품 적치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새로 도색을 했고, 공간도 분리했다. 또, 평소 청소하기 힘든 건물 지붕과 설비를 청소·도색하여 작업 공간을 한층 밝게 만들었다. 현장 근무자들은 깨끗한 작업 환경으로 업무 능률이 올랐으며, 근무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 세아창원특수강 |



'어르신 건강도우미 약상자' 나눔

지난 4월 5일, 세아창원특수강은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르신 건강도우미 약상자'를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약상자는 세아창원특수강 직원과 경남도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원목으로 조립하고 맵신아트로 만든 것이다. 약상자를 전달받은 한 수혜자는 "파스, 밴드, 상처 치료 연고 등 각종 상비약과 응급처치 물품들이 구비돼 있어 비상시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세아특수강 |



만도 Partner's Day 특별공로상 수상

지난 1월, 한라대에서 개최된 '2019년 만도 Partner's Day' 행사에서 세아특수강이 제품 경쟁력 확보와 타사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보여준 협력사에 주어지는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정몽원 만도 회장은 "선정된 협력사들과 거래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동반 성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전주병 세아특수강 대표이사는 "고객사의 성장이 곧 세아특수강의 성장임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세아메탈 |



창립 25주년 기념식 행사

세아메탈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3월 21일 창원 본사 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박도훈 대표이사는 그 자리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어려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자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사원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사우 동정

세아홀딩스

결혼

김형상 디지털혁신팀

장원준 미래전략팀

세아제강지주/세아제강

입사

신미경 수출1팀

결혼

임민지 자금팀

출산

기홍식 군산공장 품질경영팀

조의

김원규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부친)

정승윤 포항공장 기계정비반
(부친)

세아베스틸

결혼

이동준 회계팀

반상화 제강설비팀

출산

정의혁 공정연구그룹

김성우 1제강팀

임성복 1제강팀

정진수 제강설비팀

최병희 특/생산관리팀

조의

임택근 연주팀(부친)

서근석 대형압연팀(부친)

김수엽 제강팀(빙부)

김용식 제강팀(빙모)

김상욱 압연설비팀(빙모)

이현호 품질보증2팀(빙모)

세아창원특수강

결혼

윤현호 강관팀

조의

구웅기 구매1팀(부친)

김대승 가공설비팀(부친)

박상문 대형압연팀(부친)

이용희 대형압연팀(부친)

장형락 강관팀(부친)

팽준일 가공팀(부친)

조래식 가공팀(모친)

권세일 대형압연팀(모친)

주진태 강관팀(모친)

한영복 가공설비팀(빙부)

강동욱 강관단조설비팀(빙모)

유정규 가공팀(빙모)

세아특수강

결혼

김영환 충주 품질보증팀

이상은 충주 업무지원팀

조의

안정기 포항 생산팀(모친)

세아씨엠

입사

이상민 설비팀

출산

박중재 업무지원팀

세아 ESAB

조의

오용수 생산팀(빙모)

배경환 생산팀(빙모)

세아메탈

조의

김정웅 원주생산팀(모친)

세아 FS

출산

이만규 품질보증팀

조의

임인규 전기정비팀(모친)

박성복 평택공장 TSW1(빙모)

세아 M&S

결혼

김광호 금속팀

출산

이강민 자재팀

이경민 생산팀

세아 L&S

입사

김은송 판재영업1팀

한상찬 판재영업팀

정철희 철근영업팀

황문혁 철근영업팀

조의

김성욱 판재영업2팀(모친)

권기락 판매기획팀(빙모)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함 디 개발1팀

김혜인 경영지원팀

김진순 개발2팀

이원준 개발2팀

출산

정광양 서비스팀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에 특별한 동거인이 있다? 강아지, 고양이,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이구아나 등등.

세아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매 호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 반려동물용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세아홀딩스 성과관리팀 유동훈 수석

사랑으로 쑥쑥 자라는 반려 거북 '키미'



- 종류 : 호스필드 육지거북 🐢
- 좋아하는 음식 : 청경채, 어린잎 🌿

우리 가족은 아내와 저, 두 아들 그리고 거북이 키미까지 총 다섯 식구입니다. 키미가 집으로 온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키미를 데려오기 전까지 올챙이, 장수풍뎅이, 시슴벌레 등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거쳐 갔습니다. 하지만 관리하기 어렵고 수명이 짧아 키우기 어려워 돌보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육지거북이 눈에 들어왔고 키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스किन이나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덜하지만, 아이들은 매일 같이 키미에게 인사하고 밥도 주고 반신욕도 시켜줍니다. 애정으로 키운 덕에 예상보다 빨리 자라서 코코넛 은신처를 몇 번이나 고쳐주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식구로 자리한 키미. 항상 곁에서 서로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응모 방법

- 1 반려동물과 얹힌 에피소드를 8~10줄 내외로 작성한다.
- 2 반려동물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2~3장(1MB 이상) 고른다.
- 3 매일에 사연과 사진을 첨부하고, 개인 정보(소속, 직책, 이름)와 반려동물 정보(이름, 종류, 나이)를 함께 기재해 커뮤니케이션팀 이유헌 대리(yujin.lee@seah.co.kr)에게 보낸다.